

민주당, 부동산 반발 완화하고 국정동력 확보 ‘다중 포석’

행정수도 이전론 왜 나왔나

집값 안정 유효한 카드 판단

대전 어쩌다 선점 의도도

문 대통령 “지역 뉴딜” 뒷받침

통합당도 일각서 동조 목소리

국회와 청와대 등을 지방으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16년만에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당청은 행정수도 이전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핵심 의제로 강조하고 있고, 미래통합당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수도 이전론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을 제안한 후 이날 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권 잠룡들까지 찬성 의견을 내며 급물살을 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가 안건으로 오르며 당청이 동시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이런 움직임을 단거적인 국정동력 확보는 물론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다중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여권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분히 유효한 카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처방보다는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논리라는 점 때문이다.

이 같은 해법이 국민들의 공감을 끌어낼 경우 정권 최대의 리스크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차기 대선을 고려한 의제 선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보나, 충청권 민심 확보라는 실리로 보나 행정수도 이전론을 먼저 띄우는 것은 여권에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내부에서도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충청 표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거머쥔 기억은 통합당의 입장에서 빼어난 트라우마이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5선인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2일 국회와 청와대와 부처를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충청도 출신이지만, 아련의 중진 가운데 여권의 행정수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 추진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것은 그가 처음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날 당내 한 공부 모임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참여를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할 일관하지 말고 지역균형 발전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려 목소리가 우세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청와대·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53.9% 반대 34.3% 리얼미터 여론조사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 다음날인 21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9%는 이전에 찬성했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11.8%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8.8%), 대전·세종·충청(66.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은 찬성 비율이 42.5%로 반대(45.1%)보다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률이 69.1%로 조사돼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열린민주당(77.3%), 정의당(79.5%) 지지자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는 찬성 응

답이 전체의 34.4%에 그쳤다. 반대는 54.8%로 과반이었다. 연령대별 찬성 비율은 20대(66.6%), 30대(60.4%), 40대(58.8%), 50대(50.1%), 60대(39.8%), 70세 이상(42.4%) 등으로 고연령대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연합뉴스

경제 수도권 편중 더 심해졌다…산업 산출액 47% 차지

호남권, 충청권에도 크게 뒤져

취업자 수도권 51% 호남 9.6%

우리나라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수도권 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호남권은 대구·경북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은 영남에 이어 충청에도 산업 산출, 최종 수요, 취업자 등 거의 모든 산업 관련 지수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보다 분명한 국토 균형발전 의지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호남권의 산업기반을 타 지역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둘러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이출입(移出入) 및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투입산출표인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를 발표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2003년 이 표를 처음으로 작성했고, 5년마다 개편하는 기준년 산업연관표에 맞춰 작성·공표하고 있다. 종전까지 충남에 포함된 세종을 이번

에는 따로 뽑아 전국을 17개 광역시·도(7개 경제권)로 나눠 작성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 산업 산출액의 46.8%를 차지했다. 비중이 2010년(44.1%)보다 2.7%포인트 커졌다. 최종수요 역시 45.7%로, 2010년(44.8%)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경제 편중 현상이 종전보다 더 심해진 것이다. 전 산업 산출액 분야에서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부산·울산·경남이 속한 동남권(18.0%), 대전·세종·충청·충남의 충청권(12.8%)이 그 뒤를 이었다. 호남권은 9.8%에 불과해 대구·경북을 묶은 대경권(9.8%), 즉 영남권의 한 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했다.

산업과 수요에 따른 취업자는 수도권이 무려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호남권은 9.6%에 불과했으며, 동남권은 15.1%, 충청권은 10.6%, 대경권은 9.8%를 보였다.

각 지역 경제의 공급 구성(지역생산, 타지역이입, 수입)을 보면 서울은 지역내생산 비중이 70.8%로 가장 높고, 타지역이입

비중은 세종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입 비중은 전남이 17.5%로, 울산(1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에 특화된 영향으로 수입의존도(23.5%) 및 지역내 생산유발액 비중(52.9%)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내 최종수요(소비, 투자)의 지역자급률은 제주가 67.9%로 높고, 강원(66.6%), 전북(6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는 60.1%, 전남은 58.2%였다.

최종 수요 규모에서 호남권은 226.9조 원에 불과했다. 수도권이 1059.3조원, 동남권이 398.6조원, 충청권이 284.7조원 등으로 호남권을 크게 앞섰다.

지역별 최종수요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광주가 12.8, 전남이 9.7로 나타났고, 제주(14.2), 대구(14.0), 대전(13.0), 강원(13.0), 서울(12.9) 등이 높았다. 취업유발계수는 각 지역의 국산품 최종수요 10억원이 해당 지역 및 타지역에서 유발하는 전입환산기준 취업자수를 말한다.

/윤현석 기자 chadai@kwangju.co.kr

열무도 상추도 나눠 먹어야 할 자연계 친구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1) 달팽이

코로나시대를 극복하는 슬기로운 생활 가운데 하나로 원예활동이 떠오르고 있다. 꼭 그려서는 아니지만 최근 옥상 텃밭에 열무, 고추, 상추, 깻잎, 치커리, 쑥갓 등을 키우면서 새롭게 원예세계에 눈뜨가고 있는 중이다.

채소를 기르면서 민달팽이가 그렇게 알미운 생물을 줄 몰랐다. 약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작물을 키우면서 자연 생태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잠시 민달팽이는 하룻밤 사이에 텃밭을 초토화시켜버린다. 민달팽이 퇴치를 위하여 농약을 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 문득 열무도, 상추도 인간만의 몫은 아니라는 생각이 미친다. 저 햇볕과 비와 바람 등 자연이 무료로 베풀어준 양분으로 자라는 채소들이야말로 민달팽이는 물론 배추애벌레 등 생명체들과 사이좋게 나눠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굳이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최고의 질서는 자연”이라는 석학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이라는 궁극의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

앙리 마티스(1869-1954)에게 달팽이는 어떤 조형적 의미였을까. 아마도 마티스는 느릿느릿한 달팽이에게 감정 이입을 했던 것 같다. 작가가 만년에 대수술을 받고 이젤에 종이를 놓고 서서 알미운 생물을 줄 몰랐다. 약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작물을 키우면서 자연 생태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만족감도 잠시 민달팽이는 하룻밤 사이에 텃밭을 초토화시켜버린다. 민달팽이 퇴치를 위하여 농약을 뿌릴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색종이를 잘라낸 단순한 조각 열두



마티스 작 ‘달팽이’

개관으로 달팽이의 기본적인 시각 요소를 재구성하고 그 색채의 배열이 나선형의 휘도는 모양이어서 흡사 달팽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연상하게도 한다. 어린 아이들이 만지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은 달팽이의 친근한 특징을 잘 살려 동화 속 삽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인 인물이나 사물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 자체가 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거울절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